

보도시점 2025. 5. 29.(목) 15:30 이후 배포 2025. 5. 29.(목)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 육아휴직, 경력단절여성, 난임치료휴가 등 결혼·출산·육아 등에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법령·생활 용어 정비 추진 → 6월 중 국민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
- 예·적금, 대출, 보험 등에 대한 저출생 대응 금융상품 출시·운영중
 - ①(결혼·임신·출산) 적금 가입기간 중 결혼·임신·출산시 1~3%p 우대금리 제공
 - ②(양육) 정부지원금 수령과 연계하여 최대 2.2%p의 적금 우대금리 제공
 - ③(난임부부·다자녀가구) 기존 적금금리에 더한 대출금리 감면, 가임력보존부터 산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난임 관련 보장 강화, 다자녀 가구 적금 최대 4%p 우대금리 제공
- 우수 저출생 대응 금융기관에 대한 포상 강화, 일·가정 양립 선도기업에 대한 금리우대 장려 검토
- '24년 시행계획 내 중앙부처는 평가대상과제(238개) 중 210개 과제(88.2%)를, 지방자치단체는 6,444개 자체사업 중 5,219개(81.0%) 사업에 대해 성과목표 90% 이상 달성, 미흡·부진한 과제는 심층평가를 통해 개선노력 강화
- '25년 시행계획은 저출생 직결과제 중심으로 확정 예정 →
 - ①직접적 저출생 예산 28.6조원('24년 25.3조원 대비 +13%)
 - ②주거 관련 저출생 예산 9.5조원('24년 8.8조원 대비 +8%) 반영 예정
- 치매 발병 단계별로 치매머니를 체계적·전문적으로 관리
 - ①치매 발병 이전단계에서는 ①고령자(예: 65세) 대상으로 정부차원 교육·안내하는 방안, ②치매환자의 의료간병 등 전문적 생활지원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신탁제도 개선 등 검토
 - ②치매 발병 이후에는 ①전문성을 지닌 성년 후견인이 치매환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치매 공공후견과 민간후견을 확대하는 방안, ②전문적 자산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후견제도와 민간신탁을 연계하는 방안, ③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직접 신탁제도를 도입 등 검토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월 29일(목) 오후 제13차 인구 비상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❶저출생 분야 주요정책 추진현황, ❷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2024년 추진실적 평가결과, ❸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제도 및 금융 활성화 방안 ❹노인빈곤 현황과 노후소득보장체계 개편에 대한 시사점, ❺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지역 발전거점 조성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저출생 분야 주요정책 추진현황】

- 저출생 분야 주요정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❶결혼·출산 등을 둘러싼 부정적 용어 정비, ❷저출생 대응을 돕는 주요 금융상품 사례, ❸정책공모전·국민WE원회 운영. ❹유연근무 등 주요정책 추진현황을 논의하였다.

〈 결혼·출산 등을 둘러싼 부정적 용어 정비 〉

- 먼저, 결혼·출산·육아 등에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용어 정비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 육아휴직, 경력단절여성 등 일부 용어가 직장 내 눈치문화 등으로 제도의 긍정적 취지를 제한하거나 부정적 인식,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월 용어정비 추진방안을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 연구기관, 산하기관 등을 중심으로 각계 의견수렴과 광범위한 법령에 대한 포괄적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법령용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용어까지 포함하여 개선이 필요한 용어를 발굴하고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 현재까지 논의된 주요 용어 개선안 (예시)

	현재 용어	대안 용어(안)	개선 필요성
법령 용어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육아몰입기간 아이돌봄기간	'쉬고 온다'는 부정적 어감이 제도활용 저해 요인으로 작용
	경력단절여성 (여성경제활동법)	경력전환여성	'단절'이라는 표현이 부정적 인식 유발
	난임치료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임신준비기간 희망출산휴가	개인의 결핍실패로 느껴질 수 있는 '난임 치료'보다 임신출산 가능성에 초점을 둘 필요
	학부모 (공교육정상화법 등)	보호자 양육자	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 배경의 자녀들에게 소외감, 차별적 작용 가능성
생활 용어	시댁	시가/ (배우자)본가	여성만 남편의 본가를 높이는 차별적 요소
	집(안)사람, 바깥사람	배우자	성역할 고정관념을 반영한 표현
	유모차	유아차/ 영유아차	주 양육자를 엄마로 한정하는 표현

- 주요 용어 개선안에 대해서는 오는 6월 중 국민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이후 관계부처와 함께 정비 대상 용어 및 개선안을 확정하고, 법령별 정비안을 마련하여 9월 정기국회 법안 제출을 목표로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
- 아울러, 일부 법령용어는 현장 정착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즉각적 법령개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1단계로 대안용어 병기* 또는 사업·기관 명칭 우선 변경** 등 단계적 적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육아휴직' → '육아물입기간(육아휴직)'

**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대체인력'이라는 용어를 사용 중이나, 대체인력을 알선하는 사업의 명칭을 '대체인력뱅크' → '인재채움뱅크'로 변경

- 일상의 생활용어에 대해서도 국립국어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공문서 지침 반영, 공공홍보물 개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대안용어 활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정책적 대응과 함께, 사회인식 변화는 저출생 대응의 중요 축”이라며, “일상 속 용어가 국민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용어 정비는 출산·양육친화적 환경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하고, “국민 의견을 반영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저출생 대응을 돕는 주요 금융상품 사례 〉

- 그동안 정부는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의 금융권과 함께 예·적금, 대출, 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결혼·임신·출산과 연계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 오늘 회의에서는 이러한 협력의 결과로 나온 금융권의 저출생 대응 상품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논의도 이어졌다.
- 최근 금융권은 '결혼·임신·출산·양육' 등 생애주기 단계별로 필요한 혜택을 담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 ❶ 먼저, 결혼 단계에서는 여러 은행에서 가입기간 중 결혼 시 1~3%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금 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은 적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웨딩·신혼여행 상담 서비스를 연계하고, 제휴 서비스 이용 시 캐시백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 (BNK 부산은행) 「너만솔로적금」 결혼시 금리 2%p 우대 + 주택담보대출시 1%p 추가 우대
(전북은행) 「JB행복결혼적금」 워딩신혼여행 상담 제공 + 제휴업체 이용시 결제금액의 2% 캐시백

- ❷ 임신·출산 단계에서도 여러 은행에서 가입기간 중 임신·출산 시 1~3%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금 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은 출산 시 현금지급 형태의 직접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 (우리은행) '24년 출생자녀를 둔 고객이 자녀명의 계좌 개설 시 축하금 5만원 지급
(신한은행) '24~'25년 출산한 소상공인 대상 축하금 100만원 지급(노란우산공제 가입 등 요건 필요)

- 특히, 보험업계에서는 임신·출산을 보장대상으로 편입('24.8월)한 이후 다양한 보장상품이 개발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화손해보험은 최대 900만원(첫째100, 둘째300, 셋째500만원)의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는 여성 건강보험 상품을 운영('24.11월~) 중이다.

- ❸ 양육 단계에서는 정부지원금 수령과 연계하여 최대 2.2%p의 적금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한편, 자동차 보험료 할인, 출산 또는 육아 휴직 시 보험료 납부유예와 같은 생활밀착형 지원도 제공 중이다.

* (신한·기업은행 등) 부모급여·아동수당 입금계좌 보유시 적금 금리 우대(0.2~2.2%p)
(메리츠화재·롯데손해보험·삼성화재 등) 자동차보험료 자녀할인 적용중(0.8~21.3%)
(미래에셋·흥국생명 등) 출산·육아휴직시 1년간 보험료 납부유예 특약 제공중

- 한편, 난임부부와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난임 치료 및 자녀양육 등에 따른 가계부담을 고려하여 더욱 두터운 지원을 추진 중이다.

- ❶ 먼저, 난임부부나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기존 적금 금리우대에 더해 대출금리를 감면해 주는 상품도 추가로 운영하고 있다.

* (기업은행) 「힘내라 우리가족대출」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대상 최대 0.8%p 금리 우대
(우리은행) 주택구입자금 신규대출 시 미성년자녀 3인 이상 가구 0.2%p 금리 우대

- ② 보험업계에서는 최근 결혼연령 상승 및 난임시술 증가 추이 등을 감안하여 가임력 보존, 난임진단, 난임치료, 난임치료 후 출산 시 산후관리까지 이어지는 난임 관련 보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 (한화손보)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가임력 보존서비스, 난임치료 후 산후관리지원 보장 (ABL 생명보험) 난임진단-치료-산후관리까지 난임치료 전과정 보장하는 상품 판매 중

- ③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적금 상품의 경우 최대 4%p까지 우대 금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험·자동차보험 등 각종 보험 상품에서도 다자녀 가구에 특화된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 (KB국민은행) 「KB아이사랑적금」 자녀 1명당 1%p씩 최대 4%p까지 금리 우대 (삼성생명) 생명보험인 「인생금융 대출안심보험」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보험료 20% 할인 (삼성화재현대해상 등) 자동차보험 판매시 기존 자녀할인에 더해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추가 할인

□ 주 부위원장은 “최근 금융권이 사내복지나 사회공헌 활동을 넘어,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금융상품을 저출생 대응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감사의 뜻을 표하고, “저출생 대응에 앞장서는 우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정부 포상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어 “앞으로는 금리우대와 같은 기존 혜택에 더해, 지난달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되어 현재 금융회사에서 함께 검토 중인 ‘육아휴직 기간 중 민간 금융권 대출 원금상환 유예’와 같은 보다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저출생 금융상품은 대부분 가계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일·가정 양립의 주체인 기업의 가족친화경영(EFG)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 선도기업에 대한 금리우대와 같은 기업대상 금융상품 개발 노력도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아울러, “오늘 공유된 민간 금융상품 사례들을 참고하여 정부의 청년 자산형성 지원정책 등에도 결혼·출산과 연계된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책공모전·국민WE원회 운영 〉

- 정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실제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정책공모전, 국민WE원회* 등을 운영 중이다.

* 정책 수요자가 직접 정책을 점검·평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소통채널

- 중·고등생의 의견 적극반영을 위해 이번에 새롭게 발족할 미래세대 국민WE원회*는 공개모집(5.30~6.20일)을 거쳐 6월중 선발 예정이며, 선발된 국민WE원회는 온·오프라인 정책숙의 토론을 통해 청년세대 평가보고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 만15~24세 전국 청년세대 250명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소통채널

- 이러한 공모전 우수제안, 청년세대 평가보고서 등은 앞으로 추진해 나갈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 유연근무 등 주요정책 추진현황 〉

- 일·가정 양립 분야의 주요 과제인 유연근무 확산 지원 등 추진 현황도 점검하였다.

- ① 정부는 지난 6.19대책 이후 임신·육아기 근로자의 유연근무 및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사업주 지원을 강화하고 자녀연령 상향 등 제도를 확대하였다.

□ 임신기 지원

- 근로자의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가능 기간 확대
 - * 임신12주 이내, 36주 이후 → 12주 이내, 32주 이후(고위험은 임신 쏘 기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업주 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 * 단축 전 6개월 이상 근속 요건 및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 기록관리 폐지 등

□ 육아기 지원

- 육아기 근로자의 유연근무시 일반 근로자에 비해 장려금 2배 상향
 - * 선택·재택·원격근무는 월 최대 60만원, 시차출퇴근 근무는 월 최대 4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
 - * ① 사용기간 확대: 2년(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 3년(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x2)
 - ② 자녀연령 상향: 만8세(초2)→만12세(초6), ③ 최소 사용기간 축소: 3개월→1개월
 -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향: 최초 10시간 기준급여 200만원→220만원 인상
 - ⑤ 연차휴가 산정시,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
 - ⑥ 동료업무분담지원금 신설(월 최대 20만원),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80→120만원)

- ② 이러한 제도개선 노력의 결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수는 '24년 26,627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며, '25년은 전년대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4.4월 8,921명→ '25.4월 12,647명으로 41.8% 증가

- ③ 향후 정부는 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연근무 관련 우수사례 확산을 돕는 등 체계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특히,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지속 발굴하여 일가정 양립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2024년 추진실적 평가결과】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21조 및 제23조에 의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인구정책평가센터)에 위탁하여 실시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평가결과”를 논의하였다.
 - 평가대상은 중앙행정기관 238개 사업, 지자체 6,444개 사업이고, 각 부처가 과제별로 수립한 성과목표 달성도, 예산 집행률, 효과성 및 추진성과 등을 평가했으며,
 - 특히,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핵심분야 과제로 예산규모가 큰 과제(15개)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지출 필요성, 사업유사·중복성 및 추진방식,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제고 방안 등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했다.
- 먼저, 중앙행정기관 목표달성도 평가대상 과제 238개의 각 과제별 성과목표와 실제 달성치를 비교·평가한 결과, 210개 과제(88.2%)가 목표를 90% 이상 달성하였다.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국 지자체 6,444개 자체사업 중 5,219개(81.0%) 사업이 성과목표를 90% 이상 달성하고, 역점사업 총 101개 중 98개(97.0%) 사업이 성과목표 90% 이상을 달성하는 등,

- 자체사업 및 역점사업에서 높은 목표 달성률을 기록하여 지방정부 관리체계의 안정적 운영 및 각 지자체가 중점추진하는 역점사업에 효과적으로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집행율은 92.9%로, 예산투입 과제 166개 중 149개(89.8%)가 예산집행률 90% 이상 달성하였고,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율은 97.4%로, 이 중 공통사업(중앙정부 매칭사업)은 97.7%, 지자체 자체사업은 95.9%가 집행되었다.
- 저고위는 오늘 논의한 '24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에 대해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 통보하여 향후 시행계획 및 예산 편성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며,
 - 성과 및 예산집행 부진사업 등에 대해서는 '26년 예산편성 시 반영되도록 기획재정부와도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 '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의 경우,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성과와 효과가 확인된 직접적 저출생 대응 과제를 중심으로 수립 하고 확정할 계획이다.
 - 직접적 저출생 예산 사업의 총 규모는 작년('24년) 25.3조원에서 13% 증가한 28.6조원*, 주거 관련 저출생 사업은 8.8조원에서 8% 증가한 9.5조원**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 ('20) 22.1 → ('21) 20.3 → ('22) 21.1 → ('23) 23.5 → ('24) 25.3조원

** ('20) 7.5 → ('21) 8.9 → ('22) 8.8 → ('23) 7.5 → ('24) 8.8조원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제도 및 금융 활성화 방안】

-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제도 및 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정부가 지난 5.6일 치매머니 규모를 발표한 이후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파악된 치매머니 규모 및 특성을 토대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함이다.

* 고령 치매환자 추이(만명): ('23) 124 → ('30) 179 → ('40) 285 → ('50) 397
치매머니 추이(조원): ('23) 154 → ('30) 222 → ('40) 351 → ('50) 488

□ 현재 치매머니가 치매환자 본인의 의료·생활 지원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금융상품은 일부 갖춰져 있으나, 양적으로, 질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 치매 발병 전에 ❶ 믿을 수 있는 후견인을 미리 지정하는 임의후견, ❷ 치매 발병 시 의료·생활비지원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유언대용 신탁* 등 민간신탁 등을 활용하여 사전적으로 대비할 수 있지만,

* 치매발병 이전에 자산을 신탁업자(은행등)에게 위탁하여 자산을 관리하고, 치매 등 질병 시에는 후견인 선임·비용지급 등을 지원하며, 사후에는 상속을 지원하는 신탁

- 임의후견은 인지도 부족과 공증·등기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지난 10년간 총 229건 밖에 안 되며, 신탁의 경우 제도상 미비점과 낮은 인지도, 불안감 등으로 인해 5대 시중은행을 합쳐도 유언대용 신탁의 잔액은 약 3.5조에 불과한 실정이다.

- 치매 발병 후에는 치매환자의 의사 능력 정도에 따라 법원에서 성년후견인을 선정하여 치매머니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 일본, 독일 등 해외의 경우 전문성·공공성을 갖춘 공공후견인 비중이 높은 반면에 우리나라는 친족의 후견인 비중이 80%를 넘어 전문성 부족, 경제적 학대 등 여러 우려사항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관계부처,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치매 발병 단계별로 치매머니를 체계적·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우선, 치매 발병 이전부터 고령자가 본인의 미래를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민간신탁의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신탁제도 활성화를 지원한다.

- ❶ 고령자가 후견제도, 신탁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치매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일정 연령의 고령자(예: 65세)를 대상으로 제도 및 금융상품을 교육·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② 민간신탁이 치매 환자에게 의료·간병·생활을 원활히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산을 위탁받아 전문적인 생활지원·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탁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 구체적으로, ¹주택담보대출이 설정된 부동산도 신탁할 수 있도록 신탁재산 범위 확대, ²의료·간병비 지급을 위한 신탁된 부동산의 유동화 지원, ³의료, 세무 등 전문서비스와의 연계를 위한 신탁 업무위탁 범위 확대, ⁴후견제도-신탁제도 간 관계 등 법적 불확실성 해소, ⁵신탁 가입시 추가 인센티브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 치매 발병 이후에는 치매머니 관리의 전문성·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전문 후견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후견제도와 신탁제도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① 전문성을 지닌 성년후견인이 치매환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치매 공공후견과 민간후견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구체적으로, ¹치매공공후견 지원 대상을 현재의 저소득층에서 일반 국민으로 확대, ²전문 후견인 양성 확대를 위한 교육인프라 제공, ³후견인 업무수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한다.
- 무엇보다도 전문 후견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후견개시 기준, 업무범위, 수행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② 성년후견인 선정과 함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산 외에는 전문적인 자산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후견제도와 피성년후견지원신탁* 등 민간신탁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후견인이 은행과 생활비지급 등 신탁계약을 협의한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계약 체결

③ 민간신탁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신탁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이러한 정책 마련의 기초가 되는 치매머니 통계는 올해 공개한 총 규모, 치매단계별(중증, 중중이전) 규모 외에도 지역별, 소득분위별 분석을 추가하여 매년 정례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 주 부위원장은 “앞으로 20여년간 베이비부머가 후기고령자층에 진입하면서 치매머니 규모가 3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치매머니의 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연구용역 착수와 함께 관계부처·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연말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인빈곤 현황과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시사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노인빈곤 현황과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시사점”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토의를 진행하였다.
- 연구진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국민연금 성숙 등에 따라 '10년대 이후 지속 감소 추세였으나 최근 다시 소폭 증가하는 흐름이고,
 - *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 ('11) 46.5 → ('21) 37.6 → ('23) 38.2
 -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더욱 빈곤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최근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완화 효과 약화*에 기인한다고 분석하였다.
 - * 공적이전소득의 빈곤 완화 효과(%p): ('11) △10.5 → ('21) 20.3 → ('23) 17.3
- 이에 연구진에서는, 앞으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제안하였다.

- ❶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내실화 및 기초연금의 기능과 역할을 재설계를 핵심과제로 제안
- ❷ 그 외에 퇴직연금 연금성 기능 강화와 세제혜택 부여 등을 통한 개인연금 가입유인 확대, 노인보유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높은 한국적 특징을 감안한 자산 유동성 제고*, 소득과 고용제도의 정합성 제고 등도 제시

* 소액자산 보유 노인에 대한 연금화 플랫폼 개발, 역모기지+개인연금 결합형 복합 연금 상품 개발 등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지역 발전거점 조성방안】

- 국토연구원과 산업연구원에서 연구용역 중인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지역 발전거점 조성방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토의를 진행하였다.
- 연구진은 산업거점(울산, 포항 등), 외국인투자거점(인천, 광양) 등 과거 국내외 거점도시 개발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 산업의 특성은 변화하였으나, 정부 재원의 집중 투자 및 제도적 지원을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 기업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 기반 마련 등의 발전 모델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경쟁력 있는 역내 대도시를 발전거점으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지역 발전거점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역내 기업투자를 활성화하여 양질의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혁신, 지역투자·이전기업 맞춤형 인재확보 전략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붙임】 금융권 저출생 대응상품 주요 내용 정리

【별첨】 저출생 대응 주요과제 추진현황 점검

< 회의총괄 및 협조 >

담당 부서	<총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전략총괄과	책임자	과 장	박성필 (02-2100-1211)
		담당자	사 무 관	류한솔 (02-2100-1213)
	<협조>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	책임자	과 장	나윤정 (044-215-5910)
		담당자	사 무 관	오상혁 (044-215-5913)
	<협조>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	책임자	과 장	나현주 (044-203-7261)
		담당자	서 기 관	윤혜수 (044-203-7254)
	<협조>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책임자	과 장	박성민 (044-205-3101)
		담당자	사 무 관	문정목 (044-205-3129)
	<협조>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장은섭 (044-202-3370)
		담당자	서 기 관	김웅년 (044-202-3690)

	<협조>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임세희 (044-202-7470)
		담당자	사 무 관	장지훈 (044-202-7412)
	<협조>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윤세진 (02-2100-6321)
		담당자	사 무 관	이희원 (02-2100-6329)
	<협조>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동현 (044-201-3634)
		담당자	사 무 관	이지연 (044-201-3638)
	<협조>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	책임자	팀 장	정세희 (044-200-6740)
		담당자	사 무 관	강창현 (044-200-6736)

< 안전별 담당자 >

[저출생 대응 주요과제 추진현황 점검]

담당 부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조개선과 < 저출생 대응을 돕는 주요 금융상품 사례 >	책임자	과 장	이종진 (02-2100-1246)
		담당자	서 기 관	고선영 (02-2100-1247)
	저출산정책총괄과 < 결혼·출산 등을 둘러싼 부정적 용어 정비>	책임자	과 장	김혜인 (02-2100-1241)
		담당자	서 기 관	박진영 (02-2100-1242)
	평가분석과 < 정책공모전·국민WE원회 운영 >	책임자	과 장	조성래 (02-2100-1224)
		담당자	사 무 관	홍상혁 (02-2100-1226)
	고용노동부 근로문화개선정책과 < 유연근무 등 주요정책 추진현황 >	책임자	과 장	박정현 (044-202-7496)
		담당자	사 무 관	위수환 (044-202-7503)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2024년 추진실적 평가결과]

담당 부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평가분석과	책임자	과 장	조성래 (02-2100-1224)
		담당자	서 기 관	박천택 (02-2100-123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인구정책평가센터	책임자	센 터 장	하세정 (044-414-2091)
		담당자	팀 장	김평식 (044-414-2218)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제도 및 금융 활성화 방안]

담당 부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최경일 (02-2100-1261)
		담당자	사 무 관	권오경 (02-2100-1263)

- ◇ 은행·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출산·양육 지원 관련 금융상품**을 **결혼-임신(난임)-출산-양육** 등 생애주기 단계별로 구분하여 정리
- * 하나의 금융상품이 결혼/출산/육아 등 여러 단계를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도 존재

① **(결혼 단계) 결혼 시 우대금리 + 결혼비용 캐시백 등 결혼준비도 지원**

① **(우대금리 제공)** 가입기간 중 결혼 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예·적금 운영

- BNK부산은행은 결혼-출산-양육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형 적금*을 출시하였으며, 결혼적금(「너만솔로 적금」)은 결혼 시 금리 2%p 우대

* 너만솔로 적금(결혼) - 아기천사 적금(출산) - 아이사랑 적금(양육)

- 적금 가입자가 신혼집 마련 등을 위해 BNK부산은행에서 주택 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금리 1%p 추가 우대

* 기본금리 1.9% + 결혼 +2%p + 주담대·전세자금대출 +1%p → 연이율 4.9%
(기타 입출금계좌·수익증권계좌 및 혜택알림 요건 해당시 최대 연이율 7.0%)

- 신한은행의 「신한다둥이상생적금」은 결혼 시 금리 1%p 우대

* 기본금리 2.5% + 결혼 +1%p → 연이율 3.5%

(기타 다자녀, 양육수당 입금, 카드실적 등 요건 해당시 최대 연이율 8.0%)

- KJB광주은행의 「KJB미즈월복리정기예금」은 결혼 시 금리 0.1%p 우대

② **(결혼준비 지원)** JB전북은행의 「JB행복결혼적금」은 가입자에게 웨딩·신혼여행 상담서비스 및 관련 비용 지출액 2% 캐시백 혜택 제공

- 동 적금 가입자가 결혼자금 신용대출 이용 시 최대 연 0.5%p까지, 전세자금대출 시 최고 연 0.3%p까지 대출금리 감면

< 결혼 지원 금융상품 사례 >

구분	상품명	주요 내용
적금	BNK부산은행 너만솔로 적금(결혼)	· 적금 가입기간 중 결혼 시 2%p 우대 ·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자금대출 시 1%p 우대 등 * 최고 연 7%(기본금리1.9%) , 가입기간 1~3년, 월 30만원 한도
	신한다둥이 상생적금	· 결혼·임신·난임·출산 시 1%p 우대 · 미성년 2자녀 1.5%p, 3자녀 이상 2.5%p 우대 · 부모급여·영아·육아·아동수당 등 입금 시 1%p 우대 등 * 최고 연 8%(기본금리2.5%) , 가입기간 1년, 월 30만원 한도, 10만좌 한정
	JB행복결혼적금	· 결혼 관련 우대서비스 제공 - 웨딩관련 전문상담 및 맞춤서비스 제공, 제휴업체 웨딩상품·서비스 결제시 2% 캐시백 - 신혼여행서비스 제공, 제휴여행사 여행경비 결제금액의 2% 캐시백 - 결혼자금 신용대출시 적금 납입기간에 따라 연 0.5%까지 이율 감면 - 전세자금대출시 적금 납입기간에 따라 연 0.3%까지 이율 감면 * 최고 연 2.45%(가입기간별 기본금리1.55~2.1%) , 가입기간 6개월~5년
예금	KJB미즈월복리 정기예금	· 결혼 또는 출산 시 연 0.1%p 우대 * 최고 연 2.49%(기본금리 2.29%) , 가입기간 1~3년, 가입금액 5백만원~5천만원

2 (임신 단계) 임신·난임부부 우대금리 제공 + 난임관련 보험상품 확대

① (우대금리 제공) 임신·난임부부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금 운영

- 하나은행의 「하나아이키움적금」은 임신 시 금리 2%p 우대
* 기본금리 2% + 임신 +2%p + 아이미래지킴 서약 +1%p → **연이율 5%**
(기타 다자녀, 주택청약, 마케팅 등 요건 해당시 **최대 연이율 8.0%**)
- 신한은행의 「신한다둥이상생적금」은 임신·난임부부에 금리 1%p 우대
(적금상품 중 유일하게 난임부부에 대해서도 우대금리 제공)
* 기본금리 2.5% + 결혼 또는 난임 +1%p → **연이율 3.5%**
(기타 다자녀, 양육수당 입금, 카드실적 등 요건 해당시 **최대 연이율 8.0%**)

② **(대출금리 감면)** 기업은행의 “힘내라 우리가족대출”은 난임부부에 대해 대출금리 0.5%p 감면(3천만원 한도)

③ **(난임보장 확대)** 보험업계는 최근 결혼연령 상승, 난임시술 증가 추이를 감안하여 특약 등 형태로 난임치료 관련 보장 강화 추세

- 한화손해보험은 업계 최초로 가임력 보존서비스(난자동결), 난임치료 후 산후관리지원 등을 보장하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출시('23.7월~)
- ABL생명보험은 난임진단-치료-산후관리까지 여성의 난임치료 전 과정을 보장하는 상품 판매 중

< 임신·난임 지원 금융상품 사례 >

구분	상품명	주요 내용
적금	하나 아이키움적금	· 임신부 또는 양육수당 입금 시 2%p 우대 · 아이 미래지킴 서약 시 1%p 우대 · 미성년 2자녀 1%p, 3자녀 이상 2%p 우대 등 * 최고 연 8%(기본금리2%p), 가입기간 1년, 월 30만원 한도, 5만좌 한정
	신한 다둥이상생적금	· 결혼·임신·난임·출산 시 1%p 우대 · 미성년 2자녀 1.5%p, 3자녀 이상 2.5%p 우대 · 부모급여·영아·육아·아동수당 등 입금 시 1%p 우대 등 * 최고 연 8%(기본금리2.5%), 가입기간 1년, 월 30만원 한도, 10만좌 한정
대출	IBK기업은행 힘내라 우리가족대출	· 난임·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대상 최대 0.8%p 금리 우대 (난임부부 0.5%p, 2자녀 이상 0.6%p 등) * (한도) 3천만원, 다자녀가구 5천만원, (기간) 최장 15년
보험	한화손해보험	·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23.7월~) - 출산 후 5년 내 중대질환 보장 강화, 출산장려가임력보존서비스, 난임진단비, 난임치료비, 난임치료후 산후관리지원금 지급
	ABL생명보험	· 여성 난임관련 상품 3종 - 난임 진단특약(난임 진단시 지급) - 난임치료특약(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시 지급) - 난임치료후산후관리지원특약(난임치료 후 출산시 산후관리지원금 지급)

③ [출산 단계] 우대금리 외에도 일부 현금지원 + 보험보장 강화 추세

① (우대금리 제공) 가입기간 중 출산 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예·적금 운영

- BNK경남은행의 「Hi baby 적금」은 출산 시 금리 2%p 우대
 - * 기본금리 1.45% + 출산 +2%p → 연이율 3.45%
(기타 다자녀, 양육수당 입금 등 등 요건 해당시 최대 연이율 8.0%)
- BNK부산은행의 「아기천사 적금」은 출산 시 금리 2%p 우대
 - 적금 가입자가 BNK부산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금리 1%p 추가 우대
 - * 기본금리 1.9% + 출산 +2%p + 주담대·전세자금대출 +1%p → 연이율 4.9%
(기타 입출금계좌·수익증권계좌, 혜택알림 등 요건 해당시 최대 연이율 7.0%)
- 광주은행의 「KJB주거래우대예금」은 출산 시 금리 0.1%p 우대

② (현금지원) 일부 금융회사는 출생축하금 등 직접 현금지원도 실시

- 우리은행은 '24년 출생자녀를 둔 고객이 자녀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로 출생축하금 5만원 지급('24.7~'25.5월말)
- '19.1월 이후 출생한 자녀 대상으로 청약저축, 적금·보험상품 등 가입시에는 최대 2만원 바우처("우리아이행복 바우처") 제공
- 신한은행은 '24~'25년 출산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출생축하금 100만원 지원('25.3~'25.5월)
 - * 신한은행 기업대출 보유 및 '노란우산' 공제 가입 여성 소상공인

③ (보험보장 확대) 기존 출산 관련 입원비 외에도 출산지원금 지급, 유산 및 선천질환 지원 강화 등 보장 범위 확대 추세

- 한화손보는 업계 최초로 최대 900만원(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500만원)의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는 여성 건강보험 상품 출시('24.11월~)

- 교보생명은 저체중아 지원금(1.5kg 미만 50만원, 1.5~2.0kg 25만원 등) 지원
- 현대해상은 임신부의 산전질환뿐만 아니라 저체중아 등 신생아 선천질환에 대한 보장 강화
- 농협손보는 유산 진단비, 신생아 장해출생 진단비 지급

< 출산 지원 금융상품 사례 >

구분	상품명	주요 내용
적금	경남은행 Hi baby적금	- 출산 시 2%p 우대 - 미성년 2자녀 1.5%p, 3자녀 이상 2%p 우대 - 부모급여·아동·양육수당 등 입금 시 2%p 우대 등 * 최고 연 8%(기본금리1.45%), 가입기간 1년, 월 30만원 한도, 1만좌 한정
	BNK부산은행 아기천사 적금(출산)	- 적금 가입기간 중 출산 시 2%p 우대 -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자금대출 시 1%p 우대 등 * 최고 연 7%(기본금리1.9%), 가입기간 1~3년, 월 30만원 한도
예금	KIB주거래우대 예금	- 출산 시 연 0.1%p 우대 * 최고 2.59%(기본금리2.09%), 가입기간 6월~3년, 가입금액 1백만원~5억원
축하금	우리은행 출생축하금	2024년생 계좌 개설시 출생축하금 5만원 지급 2019년 이후 출생시 우리아이행복 바우처 최대 2만원 지급
	신한은행 자출생극복 축하금	신한은행 기업대출 및 노란우산 보유 여성소상공인 대상, 2024년, 2025년 출산 시 축하금 100만원 지원
보험	한화손해보험	-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3.0 ('24.11월~) - 출산 횟수별 지원금(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500만원) 지급 - 임신·출산 입원비 보장 - 제왕절개 수술비 보장
	교보생명 (HD현대 제휴)	- 교보e출산안심보험 출시 - 임신중독증, 임신성당뇨 등 임신기간 중 산모질환 보장 - 산후패혈증, 분만전후출혈 등 출산 후 위험 보장 - 저체중아 육아지원금 지원(1.5kg 미만 50만원, 1.5~2.0kg 25만원)
	농협손해보험	- NH굿스타트건강보험 (산모) 유산진단비, 임신출산질환수술비 등 보장 (태아) 신생아장해출생진단비, 저체중아입원일당 등
	현대해상	- 임신·출산 관련 보장공백 해소 (산모) 임신중독증·태반조기분리진단, 출산전선별검사이상소견진단, 특정고위험산모질환 등 보장 (태아) 저체중아·장해출생 보장, 입원·수술·실손 내 선천질환 보장 확대, 선천변형두상진단 보장 등

4 [양육 단계] 정부지원금 연계 우대금리 + 보험료 할인·납입유예 지원

- ① **(우대금리 제공)**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부모급여·아동수당 등 정부지원금 수령을 연계할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금 운영
- BNK부산은행의 「아이사랑 적금」은 가입기간 중 자녀가 특정 연령에 도달*한 경우 금리 2%p 우대
 - * 자녀가 만 1세, 2세, 4세, 6세, 8세, 10세에 해당하는 경우 금리 우대
 - 신한·농협·기업·iM·광주·전북은행 등은 해당 은행에 부모급여·아동수당 입금 계좌를 보유한 경우 적금 금리 우대(0.2%p~2.2%p)
 - * 신한다둥이상생적금 +1%p, NH아동수당우대적금 +1.5%p, IBK부모급여우대적금 +2%p, JB아이꿈적금 +0.2%p, KJB아이키움적금Ⅱ +2.2%p 등
- ② **(자동차보험료 할인)** 주요 보험사는 미성년 자녀 동승 시 운전자의 안전운전 경향이 높아지는 점을 반영, 자동차보험료 자녀할인 적용
- ③ **(보험료 납입유예)** 미래에셋·흥국생명·메리츠화재 등은 출산·육아 휴직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 1년간 보험료 납입유예 특약 제공

< 양육가정 지원 금융상품 사례 >

구분	상품명	주요 내용
적금	BNK부산은행 아이사랑 적금(양육)	· 적금 가입기간 중 자녀 연령*이 해당되는 경우 2%p 우대 * 만 1세, 2세, 4세, 6세, 8세, 10세 · 자녀명의 입출금계좌·수익증권계좌 평균잔액에 따라 최대 2%p 우대 ·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자금대출 시 1%p 우대 등 * 최고 연 7%(기본금리1.9%), 가입기간 1~3년, 월 30만원 한도
	신한다둥이상생적금	· 결혼·임신·난임·출산 시 1%p 우대 · 미성년 2자녀 1.5%p, 3자녀 이상 2.5%p 우대 · 부모급여·영아·육아·아동수당 등 입금 시 1%p 우대 등 * 최고 연 8%(기본금리2.5%), 가입기간 1년, 월 30만원 한도, 10만좌 한정
	NH아동수당 우대적금 (만 7세 미만)	· 형제자매 동시가입 시 0.5%p 우대 · 셋째 이상 아동 1.0%p 우대 · 아동수당 입금 시 1.5%p 우대 등 * 우대금리 최고 3.5%p, 가입기간 1~3년, 월 10만원 한도

구분	상품명	주요 내용
적금	IBK부모급여 우대적금	· 부모급여 또는 아동수당 입금 시 2%p 우대 · 한부모가족 지원 1%p 우대 등 * 최고 연 6.5%(기본금리2.5%), 가입기간 1년, 월 50만원 한도
	iM아동수당적금	· 아동수당 입금 시 0.8%p 우대 * 최고 연 3.95%(기본금리2.4%), 가입기간 1년, 월 10만원 한도
	JB아이꿈적금 (만 18세 이하)	· 아동수당 입금 시 0.2%p 우대 · 아이꿈통장에서 스쿨뱅킹 또는 교육재정 출금실적 시 0.2%p 우대 등 * 우대금리 최고 0.7%p, 가입기간 1년&자동재예치, 분기별 3백만원 한도
	KJB아이키움 적금II	· 아동수당 또는 양육수당 입금 시 최대 연 2.2%p 우대 * 최고 연 5.45%(3년제 기본금리 2.65%), 가입기간 1·2·3·5년, 월 20만원 한도
보험	메리츠화재	· 자동차보험 자녀할인 특별약관 - 자녀가 태아 또는 만 7세 이하인 경우 보험료 할인
	롯데손해보험	· 자동차보험 자녀할인 특별약관 - 자녀가 태아 또는 만 7세 이하인 경우 보험료 할인
	삼성화재	· 자동차보험 자녀사랑 할인특약 - 자녀가 태아 또는 만 18세 이하인 경우 보험료 0.8~21.3% 할인
	현대해상	· 자동차보험 '효도하는 자녀 할인특약' - 1자녀 1~14% 할인 및 2자녀 이상 3~16% 자동차보험료 할인
	미래에셋생명	· 민생안전보험료 납입유예특약 - 출산·육아휴직(단축근무 포함)·실직·3대중대질병 시 1년간 보험료 납입유예
	흥국생명 삼성생명	· 보험료납입유예특약 - 출산·육아휴직·실직·3대중대질병 진단시 1년간 보험료 납입유예
	메리츠화재	· 민생안전보험료 납입유예특약 - 출산·육아휴직·실직·3대중대질병 시 1년간 보험료 납입유예

5 (다자녀 가구) 각종 금리 추가우대 + 보험료 추가할인 등 혜택 제공

❶ (우대금리 제공) KB·신한·하나·경남은행 등은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1~4%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금상품 운영

- 특히, KB국민은행의 「KB아이사랑적금」은 자녀 1명 당 1%p씩 최대 4%p까지 금리 우대

* 기본금리 2% + 4자녀 +4%p + 아동수당 입금 +3%p → 연이율 9%
(기타 한부모가족 등 요건 해당시 최대 연이율 10.0%)

② (대출금리 감면) 적금 외에도 주택자금 등 대출금리 감면 혜택도 제공

- 우리·하나·SC제일은행 등은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시 다자녀 가구(자녀 수 기준은 금융회사별 상이)에 대해 금리 0.1~0.2%p 감면
- 기업은행의 「힘내라 우리가족대출」은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에 대해 금리 0.6%p 감면

③ (보험료 할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보험료 할인 적용

- 삼성생명의 「인생금융 대출안심보험*」은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에 대해 보험료 20% 할인
* 대출을 보유한 가입자가 사망·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상환
- 현대해상·흥국화재 등은 어린이보험 상품 판매 시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에 대해 보험료 1~5% 할인
- 삼성화재·현대해상은 자동차보험 판매시 기존 자녀할인에 더해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 추가 할인 제공

< 다자녀가구 지원 금융상품 사례 >

구분	상품명	주요 내용
적금	KB아이사랑적금	· 임신 또는 자녀 1명당 1%p (최대 4%p) 우대 · 아동수당 입금 시 3%p 우대 · 한부모가족 지원 등 1%p 우대 * 최고 연 10%(기본금리2%), 가입기간 1년, 월 30만원 한도, 5만좌 한정
	신한다둥이 상생적금	· 결혼·임신·난임·출산 시 1%p 우대 · 미성년 2자녀 1.5%p, 3자녀 이상 2.5%p 우대 · 부모급여·영아·육아·아동수당 등 입금 시 1%p 우대 등 * 최고 연 8%(기본금리2.5%), 가입기간 1년, 월 30만원 한도, 10만좌 한정
	하나아이키움 적금	· 임신부 또는 양육수당 입금 시 2%p 우대 · 아이 미래지킴 서약 시 1%p 우대 · 미성년 2자녀 1%p, 3자녀 이상 2%p 우대 등 * 최고 연 8%(기본금리2%p), 가입기간 1년, 월 30만원 한도, 5만좌 한정
	경남은행 Hi baby적금	· 출산 시 2%p 우대 · 미성년 2자녀 1.5%p, 3자녀 이상 2%p 우대 · 부모급여·아동·양육수당 등 입금 시 2%p 우대 등 * 최고 연 8%(기본금리1.45%), 가입기간 1년, 월 30만원 한도, 1만좌 한정
예금	제주Dream 정기예금	· 3자녀 이상 0.1%p 우대 * 가입기간 1월~3년, 가입금액 100만원 이상

구분	상품명	주요 내용
대출	우리은행 우리아파트론, 우리부동산론	· 미성년 자녀 3인 이상 가구 0.2%p 금리우대 (주택구입자금 신규대출 한정)
	하나은행 다둥이 전세론	· 미성년 자녀 2인 이상 가구 대상, 임차보증금의 90%, 2억원 한도 및 추가금리 0.15%p 지원
	SC제일은행 퍼스트홈론, 퍼스트전세보증론	· 자녀 2인 이상 가구 0.1%p 금리우대
	IBK기업은행 힘내라 우리가족대출	· 난임·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대상 최대 0.8%p 금리 우대 (난임부부 0.5%p, 2자녀 이상 0.6%p 등) * (한도) 3천만원, 다자녀가구 5천만원, (기간) 최장 15년
보험	삼성생명	· 삼성 인생금융 대출안심보험 - 자녀 2인 이상인 계약자에게 보험료 20% 할인
	흥국화재	· 무배당 흥Good 플러스 مطمئن한 자녀사랑보험 - 자녀가 2명인 경우 1%, 3명 이상인 경우 5% 할인 · 무배당 흥Good The건강한 0550 종합보험 - 5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영업보험료 2% 할인, 추가로 자녀 가입시 자녀의 영업보험료 3% 할인(최대 자녀 2명까지)
	삼성화재	· 자동차보험 자녀사랑 할인특약 및 다자녀 할인특약 - 태아 또는 만 18세 이하인 경우 보험료 할인(0.8~21.3%) - 다자녀(2명↑) 가구에 대해 보험료 추가할인(2명 이상인 경우 2~6%)
	현대해상	· 어린이보험 다자녀가구 할인 - 자녀가 2명인 경우 1%, 3명 이상인 경우 3% 할인 · 자동차보험 '효도하는 자녀 할인특약' - 1자녀 1~14% 할인 및 2자녀 이상 3~16% 자동차보험료 할인

⑥ [기업적금] 가족친화인증기업 우대금리 적용

- 수협은행의 「Sh모두행복海기업적금」은 법인전용 적금상품으로 가족 친화인증기업, 가족친화제도 운영 법인·단체 등에 금리 0.2%p 우대
 - 판매금 중 일부는 수협은행의 자체 ESG 기금으로 조성하여 출산율 회복 등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에 출연

상품명	주요 내용
수협은행 Sh모두행복海기업적금	· 가족친화인증기업 등 0.2%p 우대, 판매금 일부는 ESG기금으로 조성 * 월 100만~50억, 가입기간 1~3년